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람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5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가는 십대들의 선교행진

“십자가의 도가 ...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2005년! 2,500명 이상의 선교 비전을 향한 주님의 열심(왕 19:30)이 충현의 십대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등 1부 35명, 중등 2부 123명, 중등 3부 90명, 고등부 158명(2005. 5. 25 기준). 사실, 각 부서에서 예측한 예상 인원은 이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신청을 받고 다들 놀랐습니다. 예상 인원보다 두세 배 이상 더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등부** 학생들의 선교는 주님 보시기에

더욱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른도 하기 힘든 결정을 했습니다. 이들은 선교를 갔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친구가 많이 어렵고 단순히 여행만나 수확여행을 가는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들의 중심에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였습니다(막 16:5). 그래서 이들은 현재도 모든 훈련을 잘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주일 부서 모임을 마치고 오후에는 집에 서 쉬고 싶겠지만 이들에게 CMIC 훈련은 기본이었고, 언어 훈련·영성 훈련·자제 기도회(기도원)·팀별 훈련 등 철름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굳이 이들이 말하지 않아도 이들의 모습 속에서 모든 세상 것들을 배설물(빌 3:8)로 여기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골 6:14)하라는 참 믿음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등부의 선교 준비도 역동적입니다. 작년에는 약 40여 명이 선교를 간 것에 비해 올해는 4배 정도 더 많은 학생들이 선교에 헌신했으며, 이를 위해 철저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앞에는 대학입시라는 커다란 장벽이 있었지만, 주님은 이들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마 11:28). 그리고 이들은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요 14:27) 가운데 선교를 준비하는데 큰 힘을 쏟고 있으며 방향에는 더욱 집중적인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십대들의 선교행진은 주님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의 기쁨과 소망일 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선교 주체가 될 자식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도구로 이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막 14:8). 따라서 십자가의 능력과 은사로 나가는 십대들을 위해서 충현의 전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까지나 앞으로는 선교에 방관자가 아니라는 것? 살펴보고, 새롭게 선교를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26일) 전방예배 시 2005년 제3차 학생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세례식은 오후 3시 김길리움)**

***다음 주일(7월 3일)은 목수 김자주님 및 제5차 성전축성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그릇 (금요집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복잡성

* 금년 1월부터 금요집회를 통해서 충현의 성도들, 특별히 젊은이들을 향한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충현의 성도들과 젊은이들은 십자가 복음으로 풍성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잠시이전의 말씀을 되새겨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의로움 길 ②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 ③ **그리스도의 성성 ④ 성취할 때**
- 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인자 그리고 사랑이신 창조주이시므로 그의 계획도 그 자신의 제재와 속성을 반영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계획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예언은 완전하게 이루어졌으며 또한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하신 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서 이루어 나간다. 스스로 직접 관여하며, 또한 다른 매개체를 통하여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한다. 때로는 완전하게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의 손을 떼어서 이루기도 하신다(롬 12:4,28).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택하신든 간에 하나님만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택하신 것이니 아니라 다름은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

총이었다(엡 1:4-5, 고전 2:6-8).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측량할 수 없다(롬 11:33, 롭 16:27). 단지 우리가 불의할 뿐이지 하나님은 참되신 그의 계획은 의롭고 공경하다.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기도를 보면 공의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창 18:25, 시 51:4). 하나님은 공경하신 분이따름 3:4-6, 시 145:17). 하나님의 애정·사랑·지혜·공의는 절대적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안에 하종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지만 인간에게 그 어떠한 것도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죄를 선포하실 때 죄 그 자체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은 스스로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이 와 같이 인간이 복음을 대할 때에도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있고 또한 거부할 수도 있다. 이 선택은 자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결정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요 12:48).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므로 곧 선포주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왕으로 그의 영명한 목적에 따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인간의 행위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선포주로서 각 개인이 선택하고 행한 것에 대하여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늘 같은 것인지는 사실이다. 그의 계획은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을 주관하시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과는 항상 동일하지 않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려던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이다(창 22:1-28).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을 원하신다(딤후 2:4).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택하신 것은 아니다(롬 11:7).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원하시는 그의 뜻에 따라서 두 가지의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행하신 즉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할까를 깨닫게 주셨다. 그러나 각각 개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감추어져 있다. 이것은 모순 중의 모순이나 어떻게 이 둘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은은 해할 수가 없다(요 3:16, 요 3:36).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를 설명해 보려고 노력하였지만 항상 부족할 뿐이다. 인간의 책임을 강조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에 집중하는 결과로 죄악을 많이 드러내는 과오를 초래했다. 반면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할 때는 신도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된다. 왜 하든 선택받은 사람은 어떤든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정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도외시하면 기도의 응답을 줄 수 없는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또 인간에게 책임이 없게 되면 우리가 간구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LORD'S SUPPER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1 Corinthians 11:26)***

Today is the first Sunday of July, a time when our church celebrates the Lord's Supper. As we approach His Table, let us take a few moments to think about why Jesus commands us to partake of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in proclamation of His death until He comes. Let us appreciate and truly understand what kind of things happen between the Lord and His people at this holy meal.

The Lord's Supper is a place where believers gather to confess afresh their faith in Jesus Christ. On the outside, we say we are Christians and go to church, but inside we sometimes forget about Jesus. When we take the Lord's Supper seriously, not ritually, publicly confessing our faith in front of the church and in front of the world by physically placing the bread in our mouths and the cup to our lips, we think about Jesus, remembering His death, and He renews our memory and strengthens our faith. Jesus gives this spiritual power to the church whenever we come together for His Supper. It is a special dimension of the church, which comes through corporate worship. Hebrews 11:6 says, "An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for he who comes to God must believe that He is, and that He is a rewarder of those who seek Him." As followers of Jesus Christ, we all confess the same faith. When believers come together, they often confess God's blessings in their lives concerning things like successful business ventures, children's good grades, healings from sickness, etc... At the Lord's Supper, there is no other confession but that of the Lord's death. There are divisions within the church that serve the good purpose of distinguishing those who are faithful, "For there must also be factions among you, so that those who are approved may become evident among you," but there are no factions among us at the Lord's Table because we come together in faith (1 Cor. 11:19).

The Lord's Supper is a place where believers commune with Jesus Christ, not through their own thoughts, but by remembering that this bread is the bread of God that came

from heaven to this earth for giving life. Jesus is the Bread of Life. John 6:33-35 says, "'For the bread of God is that which comes down out of heaven, and gives life to the world.'" Then they said to Him, 'Lord always give us this bread.' Jesus said to them, 'I am the bread of life; he who comes to Me will not hunger, and he who believes in Me will never thirst.'" At the Lord's Supper, we take the bread and cup, His flesh and blood, which is a spiritual supper. We confess Jesus as our Savior and through the Holy Spirit He feeds us the food of life. Jesus told His disciples, "But I say to you, I will not drink of this fruit of the vine from now on until that day when I drink it new with you in My Father's kingdom" (Mt. 26:29). The time is coming when we will celebrate the Lord's Supper in heaven. John saw this final celebration! Revelation 19:7-9 says, "Let us rejoice and be glad and give the glory to Him, for the marriage of the Lamb has come and His bride has made herself ready." It was given to her to clothe herself in fine linen, bright and clean; for the fine linen is the righteous acts of the saints. Then he said to me, 'Write, "Blessed are those who are invited to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And he said to me, 'These are true words of God.'"

The Lord's Supper is a place where believers receive grace. Jesus instituted the Lord's Supper so that the cup of blessing could come to us, "Is not the cup of blessing which we bless a sharing in the blood of Christ? Is not the bread which we break a sharing in the body of Christ? Since there is one bread, we who are many are one body; for we all partake of the one bread" (1 Cor. 10:16-17). Eating the Lord's Supper is a heavenly blessing from Jesus Christ. He is our Savior. Because of Him, we become God's children, citizens of the kingdom of heaven. His death gives us eternal life, saving us from eternal separation from God. At the Lord's Supper, we receive God's grace through our faith in Jesus Christ. 卐

다음 주일 설교

주의 만찬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6)



김성관 목사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성찬식을 행하는 날입니다. 주의 만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고 명하셨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거룩한 만찬을 통해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또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마음에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새롭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는 믿음 좋은 신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을 의례적이 아닌 진지한 태도로 대한다면 다시 말해 실제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므로써 교회와 세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과 그의 죽으심에 대해 진지하게 묵상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러 모일 때마다 교회에 이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이것은 교회만의 특별한 예식이며 이것은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릴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6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 모두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신자들이 함께 모이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어떤 육적 축복을 내려주셨는지 늘어놓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말하자면 사업이 잘 된다든지, 아이들의 성적이 올랐다든지, 병이 나았다든지 하는 간증 말입니다. 주의 만찬 앞에서는 주의 죽으심에 대한 신앙 고백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신실한 자들을 구별하여 세운다는 명목으로 분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중에 판단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고전 11:19). 그러나 주의 만찬을 대하는 우리 중에는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나누는 친밀한 교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나누는 이 떡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떡임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33-35에는 이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만찬에서 우리는 떡과 잔, 곧 그의 살과 피를 나눕니다. 이것은 영적인 식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주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마 26:29). 우리가 천국에서 주의 만찬을 기념하게 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축제의 날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9:7-9에서 그는 증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소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총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잔을 내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고전 10:16,17).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신의 죽음을 통해 구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

장로 칼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향하여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 3:14)



김현기 (교구장)

현재 9교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모이기를 힘쓰며, 예수님을 전하며 항상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9교구는 서울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상계동 제외),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과 그 외곽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상당히 넓고, 교회에서 먼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8지역 32구역, 360세대 901명/5월 말 기준). 지역이 넓고 여러 모로 어려운 성도들이 많지만 그럴수록 교구 식구들이 더욱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돌보며 격려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금년에도 선교와 전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구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열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기선교는 세 팀이 사역을 마쳤으며 일곱 개 팀(6월에 두 팀, 7월에 세 팀, 8월에 두 팀)이 CMTC 훈련, 영성 훈련, 언어 훈련, 기도 모임 등을 통하여 선교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게 동안의 축적된 경험으로 인해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는 일이 소홀해지지 않을 것과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주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주변 전도는 교구의 7개 남부전도회가 그 동안의 46회에 걸쳐 400여 명이 전도 활동을 하며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 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사

52:7)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실시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강박해진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며, 모든 주택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지역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도대원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하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부터 교회 자원봉사부에서 시작한 자원봉사 활동에는 매주 10여 명의 여 성도님들이 맡은 곳에서 맘을 흘리며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을 씻어 내어 깨끗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미화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년에는 젊은 교구 일꾼을 발굴하여 이들을 육성하는 일과 남성구 역 활성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구에 등록된 새 가족을 돌보는 교구 양육부장이 실질적으로 교구의 새 가족을 잘 양육하고 돌봄으로써 교구 부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구의 기초인 각 구역의 성도들을 돌보느라 힘쓰고 수고하는 일꾼들을 보며 늘 마음 속에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골 1:28,29)의 고백이 저와 9교구 모든 일꾼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님을 알기에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가기 위해 온 교구 식구들과 특히 앞장선 교구 일꾼들이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2차 청지기 훈련을 마치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매 청지기 훈련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정말 귀해서 이번 훈련도 기대하는 맘으로 참여 하였다. 역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번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도 내가 지금 해야 할 일과 앞으로 내 평생에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지난 스나미 사건을 대하면서 막연하게나마 하나님께서 왜 그 땅에 그런 일을 일으키셨는지에 대한 의문과 이 땅에 마지막으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께서는 그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살아 남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로 우리가 남게 되었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 자비와 은혜가 가장 극대화된 곳, 십자가가 생겼다. 일상에서 십자가의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기보다 나의 상황을 핑계대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생각나면서 한없는 그 사랑과 은혜에 내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라는 사명을 깨닫게 하셨다. 이미 그 사실을 알게 하셨는데도 이 다음에 내가 준비하는 시험에 합격한 뒤에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반응도 없는 내 모습을 보게 하셨다.

지금 대학부 새가족들 조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매주 새가족들을 보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확실하게 보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에 급박함을 갖지 못하고 안일한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했던 내 모습이 생각나면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내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안정된 뒤에 어떠한 자각을 갖을 뒤에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목 마르지 않는 생수와도 같은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을 전해야 함을 깨달았다. 십자가의 주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써 이들을 감당하는 내가 되길 기도한다.

이미현(대학부)

내게 주신 이 소망을 품고

“여호와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 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도라”(시편 18:2). 다했이 찬송하며 고백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도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2차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청지기 훈련 때는 많은 것을 깨우쳐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번에도 많은 기대와 흥분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호호하고 있으며 이 땅에 남겨져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내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버리지 아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사랑이 증거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기 위해 내가 남겨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개하여 주님 앞에 서기까지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벧후 3:9). 언제까지 호흡을 하게 하실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고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때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만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소망을 품고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입으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동현 (집사, 청년2부)

제2차 청지기 훈련을 마치고

나를
살려주신
이유

모태 신앙으로 자라와 깊은 고민 없이 하나님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삶의 베이스로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나였다. 나 나름대로는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또 교회에서 리더의 자리에도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실존적인 질문 앞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배워왔지만 그런 고민들 앞에서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위해왔을 뿐이지 나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이번 청지기 훈련을 통하여 이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왜 살아남았는가? 삶과 죽음이 좋은 한 장 차이와 같은데 많은 죽음의 가능성을 뚫고 왜 나는 살아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이었다. 계속되는 죽음의 위험 앞에서 여전히 나를 보호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나를 통해 이루실 다른 이들의 구원을 향한 계획 때문이었다. 심판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시기 위해 나를 살려두신 것이다. 모든 인간들에게 임할 죽음과 심판 앞에 자유하며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지금까지 깊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젊음의 때에 이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답과 같이 더욱 깨끗하고 단련된 신앙을 주실 것을 믿는다.



유채현 (대학부)

내가
해야
할 일

이번 청지기 훈련은 저에게는 더 없이 좋은 은혜와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믿을 없는 저에게 청지기 훈련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첫 사랑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교회로 향하는 저의 발걸음은 설렘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교회에 도착한 저는 감싸 놀랐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본당이 부족해서 갈릴라를, 나사렛을, 베다니홀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와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홀로 있는지라" (겔 9:8) 말씀이 선포될 때는 더 없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보았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살아 있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곳곳마다 제단과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때에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남기두셨는지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며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성하지 못한 죄인의 심정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애똥하였을까를 생각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청지기 훈련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가슴에 품고 오직 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만 따르고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권명희 (집사, 5교구)

나를 버리고!
나를 찾고!

홍현주 (초년1부)

때문이다(계 22:17).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히 10:22).

그 은혜를 깨닫아 나 자신을 버리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았다. 그 동안 감정에 이끌린 나의 모습을 보게 하였고 감정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나의 것을 버리기를 원하심을 깨닫게 하였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이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 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이번 청지기 훈련을 통해 과거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지금 현재 신앙에 대해서 정정할 기회를 주셨고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나를 살려두신 이유와 목적들,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영혼을 살렸기

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추구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나는 안전하다 할 수 있는가? 나는 살아 남을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진정 믿는가? 내 안에 심령이 새로워졌는가? 아직도 옛 사람 그대로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 나의 환경과 그 안에 속해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난 언제부터 나의 것을 드리는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라고 있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보다 사람들이 하는 칭찬에 대해 귀가울이고 있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없이 아무 것도 아님을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였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움을 낳도록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나의 힘과 의지로 나의 것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인도하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만만 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림과 소망을 잃지 않는 강한 믿음을 구한다.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십자가의 길 가운데 살아 남음을 기뻐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길 기도드린다.

에스겔과 다니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임을 감사하며 예수님 없이 살았던 과거 나의 모습을 기억하며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아직 예수님 없이 사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중언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란다.

미래에 어느 심판날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묻실 것이다.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총을 얼마만큼 따르고 전하였느냐고?

그때에 나의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리드리기를 소원한다. 구원의 역사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의 삶을 열어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은총의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1교구 7지역 선교소감

미리 준비하신 영혼들을 만나며

♥ 이부성 안수집사

저희는 성령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또한 훈련받은 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지금 그곳은 정권 퇴진운동이 젊은 대학 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내 거리는 성원한 군경의 검문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십자가 복음 앞에는 곧 어려움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슬람 문화와 회교 사원이 무너지고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승규 집사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시는구나 생각하며, 자신감을 얻고 그곳 어린이들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뒤로 한 채 첫날을 보냈습니다. 사역 셋째 날엔 딸기나무 아래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출애굽에 나오는 중심 지역인 숙소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우리는 경건한 새벽에 새벽에 나가 수천 년 전의 이 광야를 회상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 임태수 집사

나누어 주러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들 때문에 많이 도전받아 영혼의 부요를 얻었습니다. 연약한 지체들끼리 모여서 갔지만, 그 연약한 부분 모두를 주님은 들어 쓰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픈 팀원이 생기면 모두가 합심 기도로 더 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 김승희 집사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믿고 순종함으로써 '일어나 가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갔는데, 주님께서 왜 이곳까지 보내셨는지 그분의 뜻을 알게 해 주셨고 새벽 미명에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신령아에서 일생 동안 잊지 못할 순례의 길을 가게 하였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 김경숙 집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동안 주님 일을 한다면 분주했던 나를 선교를 통해 신령아에서 새벽에 성령께서 임하여 회개의 영을 부어 회개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함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소중하였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사역하였습니다.

♥ 김행자 집사

팀 모임을 할 때부터 선교지에 대해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를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기도와 성령을 의지하여 선교지로 갔고 우시로 기도하며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행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을 볼 수 있었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모든 사역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강선권 집사

모든 격정과 열려를 내려놓고 선교 사역지에 대한 기대와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과연 '여호와아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역지의 메마르고 사막화된 곳에서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팀원들을 반겨주었고 복음의 메시지를 잘 받았습니다. 그 땅이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기쁨으로 지는 십자가

첫째 날,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여독이 풀리지 않고 무더운 날씨에서 잊기조차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린 한 소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보기에는 작은 마을 같았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어찌 이리도 아름다운 사람들 곁으로 저희들을 보내 주셨는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사를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둘째 날, 또 다른 마을로 출발했습니다. 휴먼지가 날리는 황토길들 버스를 타고 끝도 없이 달렸습니다. 가도 가도 마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걷기와 땅들이 모두 메말라 농부들은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그들에게 전해 주는 전도지는 쓰임받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들은 전도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주 안에서 모든 생각들을 꽃처럼 아름답게 하고 나무처럼 말 없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말씀을 전하고 마을을 떠나려는 순간 경찰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마을은 게임장이 내려져 경찰의 경계가 철거했습니다. 또한 전날 시내 중심의 상점 세 곳이 폭탄 테러로 폭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팀은 모두 주님의 은혜로 다행히 사고를 면했지만 외국인인 저희들의 행동은 많은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기도했습니다. '저희들도 주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 뒤에는 영광,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음을 알기에 이 사람들을 향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게 하옵소서.'



이명화 (집사, 7교구)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몇 개월 전부터 단기선교를 준비하였다. 선교지의 민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을 꼭 영접하도록 매일 기도하면서 그 먼 곳으로 떠났다. 막상 현지에 도착하니 날씨가 매우 차고 세찬 바닷바람과 매일 내린 비가 대원들이 기침 감기에 걸려서 목이 아픈 상태였다. 그런 악조건 하에서도 차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는 한 영혼을 만나면 차에서 뛰어내려 비를 맞으면서 전도지를 읽어주며 복음을 전하였다. 그들이 '아멘'으로 영접하는 것을 보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역하는데 용기와 큰 힘을 주셨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안 되겠지. 어떻게 하나?' 하고 근심할 때마다 들려오는 소리 '오! 잘! 기도하자' 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한 고비 넘겨 주시고 적절한 방법을 알려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날 하루 하루를 전도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 전도지를 읽어 줄 때에 눈물을 글썽이던 한 부인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고 돌아오며 주님께 감사하였다. 힘들고 어려웠던 사역이었지만 건강 지켜 주시고 팀원 간의 마음과 마음을 사랑으로 더욱 돈독하게 묶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박복순 (집사, 12교구)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6월 27일(월)~7월 5일(월)	대학부(1)	김나홍	6월 29일(수)~7월 8일(금)	14교구 2지역	김민수
6월 27일(월)~7월 6일(수)	9교구 8지역	홍성욱	6월 29일(수)~7월 9일(토)	18교구 1지역	정부조
6월 27일(월)~7월 6일(수)	12교구 1지역	최세진	6월 29일(수)~7월 9일(토)	대학부(1)	이승득
6월 29일(수)~7월 8일(금)	대학부(2)	정석창	6월 30일(월)~7월 8일(금)	17교구 6지역	김건근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6월 20일(월)~6월 29일(수)	16교구 5지역	윤상철	6월 21일(화)~6월 29일(수)	10교구 6지역	노재경
6월 20일(월)~6월 29일(수)	16교구 6지역	윤영범	6월 23일(목)~7월 1일(월)	6교구 2지역	김규식
6월 21일(화)~6월 28일(화)	9교구 6지역	오재일	6월 23일(목)~7월 1일(월)	6교구 3지역	문연식
6월 21일(화)~6월 29일(수)	4교구 2지역	오순도			

★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6월 13일(월)~6월 21일(화)	10교구 5지역	김경환	6월 14일(화)~6월 23일(목)	4교구 4지역	신광철
6월 13일(월)~6월 22일(수)	13교구 7지역	권영주			

교회 탐방 69 중등3부 선교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십대들과 다른 이들의 순수 마음을 느껴 봅시다.

중등3부 학생들의 선교 준비

지난 1월 26일부터 26일까지 있었던 겨울 수련회에서 CMTC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5명의 학생들과 34명의 교사들이 짝을 이루어 8개 팀으로 구성되어 매주 집회 후 언어 훈련과 찬양을 통하여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중모임, 생지침)

중등3부 학생들의 믿음의 고백

저는 작년에 처음 선교를 했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 습니다. 제가 간 나라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저는 저 혼자 천국에 갈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꼭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신영문)

친구들과 같이 선교지에 갈 것을 생각하니 좋았어요. 그런데 막상 훈련을 받고 보니 다른 나라 말을 배운다는 것이 어렵고 또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어요. 일도 들 것 같고요. 하지만 힘들 때 도와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그분을 믿고 갑니다. (김영명)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 일로 하려고 할 때 얻어도 더 안 되고 모든 것이 힘들게 느껴졌는데 주님께 기도하니 임이 있었어요. 늘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김재민)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정했는데 막상 실감이 아직은 안 나와. 하지만 훈련이 아주 재미있어

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은 공부 때문에 선교를 포기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저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매일매일 일 최선을 지어요. 그런 저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하고 올 거예요. (연건희)

많이 고맙는데 막상 가기로 결정하니 마음이 편해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꼭 전하고 싶어요. (김정원)

저는 알려내서 선교를 다녀오시고 저에게 권유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기로 했어요.

저는 약하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김사유영)

학생들과 선교를 준비하며

처음에 많이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점점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겠지만 그 가운데서 꼭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일하심을 느끼고 오리라 믿어요. (김성영 교사)

마냥 철부지 같았는데 언어 훈련을 하면서 기강을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으로 임이 들지만 손을 잘하는 아이들이 많을 때 아이들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신영문 교사)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을 보며 욕심 없는 이들의 믿음을 본명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선교를 갔다는 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아이들이 기대됩니다. (이보영 교사)

중등3부 학생들이 통해 일하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편진실)

다음 주일 찬송

284장 주 예수 해변서

이 곡은 메리 아테미시아 래스베리(Mary Atamis(Ann) Lathbury, 1841-1913)가 1877년에 작사한 찬송이며, 윌리엄 피스커 서원(William Fiske Sherwin, 1826-1888)이 1877년에 찬송가로 작곡했다.

이 곡의 배경은 주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성경 말씀이 그 바탕이 된다. 작사자 메리는 쉬터구아 호수 언덕에 서서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의 많은 무리들이 생명의 만능을 사모해서 모이던 것을 보면서 갈릴리 호숫가에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생명의 떡을 먹여 주신 것처럼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게 해 달라는 간구를 시로 쓰게 된 것이다.

1절은 예수께서 배에서 났을 때 다섯 개와 물고기가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던 장면을 생생히 떠올려 주며, 많은 사람이 사탄들을 쫓아내고 길과 같은 무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풍족히 나누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다.

2절은 영생의 말씀이신 우리들의 주님께서는 목 마르고 갈급한 심령인 우리들에게 과거 갈릴리 해변에서 하신 일처럼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게 해 달라는 간구를 시로 쓰게 된 것이다.

3절은 죄와 사망의 사슬에 얽매인 우리 심령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슬을 끊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며 찬양한다.

4절은 성령의 인재를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영이 밝아지며,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던 우리가 진리를 바로 발견하고 깨달아 알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찬양한다.

이제 2005년 다섯 번째 성찬식이 다음 주일 시행됩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의 많은 무리들처럼 오늘 우리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주의 성찬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신앙원회)

새·가·족·을·환·영·하·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777	최진경	19	청년1부	임선재	1811	이영국	2	청년1부	박영준	1845	이성훈	13	청년1부	노승희
1778	김남환	4	청년2부	이기환	1812	최진경	2	청년1부	최순광	1846	김광현	19	대학부	박상희
1779	김영태	9	고등부	이현숙	1813	홍지은	7	청년1부	홍찬희	1847	이영남	19	고등부	전준희
1780	유재현	16	청년2부	김성희	1814	이승남	19	대학부	김광현	1848	홍희성	19	고등부	김종규
1781	서지	19	외선부	박성희	1815	이승남	7	청년1부	김광현	1849	김광현	19	고등부	김종규
1782	서지	6	청년2부	황진우	1816	정종현	16	청년1부	김광현	1850	김광현	14	고등부	김종규
1783	박성희	13	청년2부	박성희	1817	박지은	17	청년1부	정종현	1851	정지은	9	소년부	안영민
1784	정종현	12	청년1부	김성경	1818	정종현	17	청년1부	정종현	1852	이성훈	13	청년1부	이우진
1785	고기희	18	청년2부	정종현	1819	정종현	3	청년2부	정종현	1853	이성훈	9	청년2부	김종희
1786	최종현	9	고등부	박성희	1820	김종현	19	외선부	박성희	1854	김광현	6	청년1부	이진규
1787	박성희	19	중등3부	이보영	1821	김광현	17	청년1부	김광현	1855	김광현	19	대학부	김진기
1788	이성훈	19	중등3부	김성경	1822	문지은	19	외선부	이보영	1856	이영남	19	대학부	민승희
1789	이성훈	19	중등3부	유재현	1823	문지은	10	청년1부	김광현	1857	정종현	19	청년1부	최종현
1790	오준우	19	중등3부	유재현	1824	조종현	10	청년2부	김광현	1858	최성미	13	외선부	정종현
1791	백혜련	19	중등3부	임영태	1825	김광현	1	청년1부	김광현	1859	김광현	13	외선부	이보영
1792	이규범	19	대학부	왕성희	1826	김광현	17	청년1부	김광현	1860	고정현	19	청년1부	한준희
1793	이현숙	15	청년1부	정종현	1827	정종현	19	청년1부	정종현	1861	박영준	19	대학부	이보영
1794	서정현	3	청년2부	박성희	1828	정종현	19	고등부	유재현	1862	김광현	19	청년1부	정종현
1795	이성훈	19	중등3부	김성경	1829	오준우	19	청년1부	이보영	1863	이성훈	19	대학부	한준희
1796	백혜련	19	중등3부	박성희	1830	이보영	19	청년1부	정종현	1864	조종현	19	대학부	정종현
1797	백혜련	19	청년2부	김성경	1831	정종현	13	청년1부	정종현	1865	정종현	19	청년1부	정종현
1798	정종현	11	청년2부	김광현	1832	정종현	19	대학부	정종현	1866	정종현	14	대학부	정종현
1799	정종현	12	청년1부	김광현	1833	정종현	19	청년1부	정종현	1867	정종현	19	대학부	정종현
1800	정종현	12	청년1부	김광현	1834	정종현	19	청년1부	정종현	1868	정종현	19	대학부	정종현
1801	이영남	1	청년2부	이보영	1835	정종현	1	청년1부	정종현	1869	정종현	19	대학부	정종현
1802	김광현	19	청년1부	고정현	1836	정종현	19	대학부	정종현	1870	정종현	19	대학부	정종현
1803	오정현	12	청년1부	박성희	1837	정종현	19	대학부	정종현	1871	정종현	19	대학부	정종현
1804	정종현	4	청년2부	이보영	1838	정종현	19	청년1부	정종현	1872	정종현	19	대학부	정종현
1805	박성희	19	청년1부	김성경	1839	정종현	19	청년1부	정종현	1873	정종현	19	대학부	정종현
1806	조종현	19	청년1부	김성경	1840	정종현	19	고등부	정종현	1874	정종현	19	대학부	정종현
1807	이보영	1	소년부	박성희	1841	정종현	19	대학부	정종현	1875	정종현	19	대학부	정종현
1808	정종현	19	청년1부	정종현	1842	정종현	19	대학부	정종현	1876	정종현	19	대학부	정종현
1809	김지은	19	청년1부	정종현	1843	정종현	19	고등부	정종현	1877	정종현	19	대학부	정종현
1810	정종현	19	청년1부	정종현	1844	정종현	13	소년부	정종현	1878	정종현	19	대학부	정종현

※ 출현한 순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연인도				
정연희 12월 22일	신동주 12월 22일	윤인숙 3월 22일	한영준 12월 22일	김연식 4월 22일
조옥자 10월 22일	김경자 12월 22일	김팔자 12월 22일	김정연 12월 22일	
조옥자 12월 22일	강덕희 14월 22일	최문실 12월 22일	전은희 12월 22일	김영희 12월 22일
김경자 12월 22일	이아경 4월 22일	김경희 12월 22일	이복순 12월 22일	류진희 12월 22일
한성임 12월 22일	임태주 12월 22일			

■ 찬양감독 김갑구

■ 전일지휘자 서준성

■ 전일독창자 김소연

■ 선 교 시 소연